

# 濟州人の 3·1運動과 그 영향\*

金 東 柱\*\*

## 목 차

- I. 머리말
- II. 3·1運動 직전 濟州의 狀況
- III. 濟州地域의 3·1運動
- IV. 島外에서의 3·1運動
- V. 其他의 運動
- VI. 맺 음 말

## I. 머리말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결연한 자주독립의 의지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전민족적인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운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에서의 3·1운동은 日帝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12府 220개 郡 중에서 12부 211개 郡에서 일어난 것<sup>1)</sup>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봉기한 3·1운동은 지도부 없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지방의 3·1운동<sup>2)</sup>은 대체적으로 지역인사의 因山참여, 서울 거주 지방인의

\* 이 글은 濟州島史硏究會 주최 「제주지방독립운동사학술회의」(1995. 10. 27)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濟州大學校 史學科 敎授

1) 김진봉, 「3·1운동과 民衆」, 『三·一運動 五十周年 紀念論集』, 1969. p. 362.

2) 다른 지역에서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조동걸, 「3·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41,

귀향으로 서울의 3·1운동 소식과 獨立宣言書가 전달되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중앙의 소식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에서 시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충분한 운동의 주체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지방의 3·1운동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운동의 주체적 역량이 각 지방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곧 지방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

제주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宋光培의 선행 연구가 있으며,<sup>3)</sup>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金奉玉·高昌錫·梁鎭健·金燦洽 등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sup>4)</sup> 그러므로 이 작업은 이들 선행 연구에 일정한 시사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언급한 운동의 주체적 역량의 형성이란 점에 유의하면서 3·1운동 직전의 濟州狀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제주지역의 3·1운동, 島外の 3·1운동에 참여한 濟州人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3·1운동 이후 전개된 다양한 제주지역 민족해방운동이 3·1운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1970.

——, 「3·1운동 때 지방민 참여문제-양양과 강릉의 경우」, 『춘천교대 논문집』 9, 1971.

李廷銀, 「安城郡 元谷 陽城의 3·1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1, 1987.

김진봉, 「관서지방의 3·1운동」, 『최영희 선생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87.

李廷銀, 「창녕군 영산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李廷銀, 「경남합천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 3, 1989.

李相潤, 「평안도 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이지원, 「경기도 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鄭然泰,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연구』, 청년사, 1989.

이정은, 「3·1운동의 지방 확산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權大雄, 「청도군 운문면의 3·1독립운동」, 『西巖趙恒來교수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3) 宋光培, 「濟州地方의 三·一運動과 그 후의 抗日運動」,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84.

4) 金奉玉, 「기미년 독립운동과 제주도민의 운동」, 『교육제주』 19, 1972.

高昌錫, 「濟州人의 抗日獨立運動」, 『제주도』 86, 1989.

梁鎭健, 「조천만세동산의 역사적 의미」, 『北濟州』 북간호, 1990.

金燦洽, 「제주인의 항일독립운동」, 『濟州道誌』 1권, 1993.

## II. 3·1運動 직전 濟州의 狀況

### 1. 日帝侵略과 濟州社會

1905년 이후 일본의 침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행정은 1906년 濟州府가 濟州郡으로 명칭이 개편되고, 정의군·대정군이 신설되어 三郡制를 형성하기에 이른다.<sup>5)</sup> 1907년 가을에는 일본의 육군 副尉 手島半次가 인솔하는 군인들이 제주·대정·정의 3군의 군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sup>6)</sup> 뿐만 아니라, 일제는 面里에 존재하고 있던 전통적인 직제들 즉, 約正·尊位·警民長 등의 제도를 없앴으로써 향촌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해 나갔다.<sup>7)</sup> 제주도민이 산천단에서 해마다 거행하던 한라산신제를 혁파해 버린 것도<sup>8)</sup>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는 1914년 4월 1일부로 제주의 면명 및 구역을 새롭게 정하여<sup>9)</sup> 面을 침략수단의 하나로 징세와 치안의 말단 기구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그들은 통치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징세 및 경찰력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의 濟州管稅署 설치와 1906년 광주경무 소속의 濟州分派所 설치가 그것이다. 제주분파소는 1907년 목포경찰서 濟州分署로 개편되었고, 1908년에는 제주경찰서로 개편된다.<sup>10)</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09년 제주 유림들이 중심이 된 濟州義兵이 高承天을 중심으로 일어남으로써 도

5) 金錫翼, 「耽羅紀年」, 卷4, 光武 10年條, 「心齋集」, p.176.

6) 위의 책, p.177.

「光武 11年 秋日本遣陸軍副尉手島半次來 燒燬三邑軍器及炮硝」.

7) 위의 책, p.177.

8) 위의 책, p.178. 「罷山川州社諸公祀祭享」.

9)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4월 7일. 당시의 면의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주면: 중면(元濟州郡) 일원, 구좌면: 구좌면 일원, 신좌면: 신좌면 일원, 구우면: 구우면 일원, 신우면: 신우면 일원, 정의면: 좌면(元旌義郡) 일원, 동중면: 동중면 일원, 서중면: 서중면 일원, 우면(元旌義郡) 일원, 대정면: 우면(元大靜郡) 일원, 중면: (元大靜郡) 일원, 좌면: 좌면(元大靜郡) 일원, 추자면: 추자면 일원.

10) 金錫翼, 앞의 책, pp.117, 118.

민의 집단적인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1)</sup> 이에 일제는 경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주요 지역에 순사주재소를 설치하여 1914년 9월 1일에는 조천·김녕·정의·대정·서귀포·명월·성산·추자도 등 8개소에 이르렀다.<sup>12)</sup> 1917년 2월 8일에는 순사주재소가 조천·서김녕·동중(성읍)·모슬포·서귀포·고산·한림·애월·성산·추자도 등 10개소로 증가하였으며,<sup>13)</sup> 1917년 12월 1일에는 이 외에 봉개·오등·금덕·중문 등 4개소가 더 설치되었다.<sup>14)</sup> 1918년 8월 26일에는 순사주재소를 경찰관 주재소로 개편하였으며,<sup>15)</sup> 1919년 4월 1일에는 오등경찰관 주재소를 없애고, 금덕경찰관 주재소를 외도경찰관 주재소로 개정하는 한편, 의귀경찰관 주재소를 신설하게 된다.<sup>16)</sup>

이와 같이 제주지방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 상태는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전국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였다. 지주 또는 결인이 거의 없는 자작농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驛屯土調査와 土地調査事業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자작농이 토지를 강탈당하고 말았다. 심지어 1908년에는 역둔토에 설정되었던 賭地權을 아무런 보상없이 폐지시킴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sup>17)</sup>

또한 제주도에서 1912년의 지적측량과 아울러 토지조사사업(1913~1916년)이 이루어졌다. 즉, 일제는 1913년 8월 5일 제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토지조사국 또는 당해 관리에게 1913년 8월 15일부터 1914년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하였다.<sup>18)</sup> 이에 토지 소유자는 기한내에 그 주소·성명·소유자·소

11) 1909년의 제주 의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拙稿, 「1909년 濟州義兵의 實狀과 意義」, 『星主』 5, 1995.

12)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8월 27일.

13) 위의 책, 1917년 2월 8일.

14) 위의 책, 1917년 12월 1일.

15) 위의 책, 1918년 8월 26일.

16) 위의 책, 1919년 3월 29일.

17) 이영훈,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구조」,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p. 150.

18)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8월 5일.

유지·지목·등급 등을 신고하여야 했다.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전남도당국은 1916년 1월 4일 제주도 전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그 구역을 공시하고, 島廳에서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토록 하였다.<sup>19)</sup>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양식 및 근대적 법률관념에 어두워 조상 전래의 농지를 그대로 몰수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도민들의 생활은 1911년 대풍우, 1913년의 대기근, 1914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지마저 빼앗겼고, 설상가상으로 1917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sup>20)</sup> 이에 농민들의 절대적 빈곤은 일본사회의 값싼 노동력 요구와 맞물려 1917~19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으로의 노동력 유출은 이전에 비하여 매우 높아졌다.<sup>21)</sup> 이를 더욱 촉진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부정기적이기는 했지만, 1918년 제주-대판간의 威鏡丸의 운항이다.<sup>22)</sup> 제주도 노동자의 일본 유출은 192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어 나갔다.<sup>23)</sup>

한편, 1914년에는 총령 제136호 시장규칙에 의하여 城內·삼양·조천에 시장을 설치하였다.<sup>24)</sup> 그후 19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애월·한림·하모·화순·중문·서귀·남원·성산에 시장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 설치의 근본적인 의도는 일본의 잉여 상품을 비싼 값으로 제주도민에게 판매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액의 시장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징세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설치가 도민의 경제적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없었다.

朝鮮殖産銀行 제주지점의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1918년 10월 1일,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이 자본금 1천만원으로 3도리 71번지에 설치되었다.<sup>25)</sup> 그리고 제주·성산·대정·서귀·한림·애월 등지에 금융조합이 설치되어 외면적으로는 도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월 4일.

20) 김석익, 앞의 책, pp.178~180.

21) 이영훈, 앞의 논문, pp.131~138.

22) 위의 논문, 참조.

23)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1937, 1939.

24) 탐라기년에는 1906년(광무10)에 삼양·조천·김녕·세화·고성·표선에 場市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5)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10월 24일.

이러한 기업은 주로 토지 경영과 육·해산물의 약탈을 위한 방조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또 농민들을 상대로 토지저당 등 고리대 사업을 시작해 그 실상은 도민들을 약탈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차(1912~1913년), 2차(1914~1917년)에 걸쳐서 진행된 총 181km의 일주도로 건설은 토지의 강제적인 몰수, 도민의 부역을 무리하게 동원함으로써 도민의 원성을 자아냈다. 이는 3·1운동 직전에 일어난 1918년 제주 법정사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儒林勢力的 動向

19세기말 제주의 유림은 기호학파의 이항노 계열인 華西學派 계통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1873년(고종 10) 10월 16일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제주에 유배된 崔益鉉의 영향 때문이다. 崔益鉉은 1873. 12. 5~1875. 4. 12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제주 유림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하게 된다. 그의 師友錄에 기재된 제주 유림은 金羲正이 유일하지만, 그와 從遊했던 제주 유림으로는 安達三·姜基奭·金龍徵·金燾·金致鎔·金養洙·李基璠·姜哲鎬 등이다.<sup>26)</sup>

勉庵 崔益鉉의 영향을 제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09년의 濟州義兵, 비밀결사체인 集義契의 결성, 신좌면(현 조천읍) 조천리의 3·1운동이다. 먼저, 1909년 제주의병의 의병장이었던 高承天(別名 仕訓)은 崔益鉉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척사론을 본받아 스스로 義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고승천이 면암 崔益鉉의 순국 소식을 듣고 金錫允과 의병창의를 결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sup>27)</sup>

다음으로 集義契의 결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李應鎬였다. 그런데 이용호는 면암과 더불어 交遊하였던 이기온과 父子관계에 있었으므로 면암의 계통이라 할 수 있다. 集義契 12인 중에 직접 면암의 학통을 이은 사람으로는 金炳潞·姜哲鎬를 꼽을 수 있으나, 그 외로 金佐兼·金炳龜·金履仲·徐丙壽·高錫九·金錫翼·康錫宗·林成淑·金基洙 등도 사실상은 면암의 영향력 밑에 있었던 인물들이다.<sup>28)</sup>

26) 梁鎭健,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1, p. 151.

27) 참고, 앞의 논문, 참조.

28) 양진건, 앞의 논문, 1991, pp. 155~157.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3·1운동은 조천리 金時宇의 소기를 거사일로 하여 발생하였다. 김시우는 조천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는데, 그는 崔益鉉의 유일한 제주지역 제자인 김희정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sup>29)</sup> 따라서 김시우의 사상적 위상은 崔益鉉의 척사제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주도세력이 김시우의 直系親이었다는 점에서 면암의 영향을 받은 김시우의 역할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한말에 이르러 제주유림층의 일부는 보수적인 면을 일신하고 개화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해 나가기도 하였다. 그 촉매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개화파 金允植과 朴泳孝의 제주 유배였다. 金允植은 1897년부터 1901년 6월까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朴泳孝는 1907년부터 1년간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그는 형기가 끝나도 그대로 제주에 머물러 있어 3년이 지난 1910년 6월에야 출륙하였다. 이 양인의 제주 활동은 제주의 근대교육은 물론 계몽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金允植은 1898년 4월 22일 「橘園」詩會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洪鍾時·金應鏗·金應斌·金炳潤·金秉夏·崔元淳·金昌鎭 등에게 개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특히 김응빈은 자신의 집을 金允植의 적소로 배려하기도 하였다. 朴泳孝 역시 제주에서 농촌계몽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홍종시·김응전·김응빈·宋斗玉·蔡龜錫·金熙斗·崔元淳·장용건·안병택 등과 학문적인 질의와 토의를 나누면서 계몽운동 및 신학문을 전해 주었다.<sup>30)</sup> 조천지역의 新明私塾이나 朝天義塾<sup>31)</sup>은 개화적 성격을 띤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이들의 일정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3. 새로운 知識人層의 成長

1910년을 전후한 시기, 제주사회의 새로운 변화중의 하나는 신학문의 도입이나 종교의 유입으로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후일 제주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세력들이라 할 수

29) 양진건, 앞의 논문, 1991, p.172.

30) 양진건, 앞의 논문, 1991, pp.174~178.

31) 신명사숙은 1906년, 조천의숙은 1909년에 각각 조천에 설치되었는데, 그 사상적 배경은 동도서기적 입장이었다(양진건, 「濟州教育行政發展史」, 1991, p.227).

있다.

이러한 부류의 교육기관으로 1905년 개성학당(대정), 1907년의 의명학교(성읍), 1908년 한일학교(대정) 등이 개설되었다. 근대교육기관으로는 1907년 1월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907년 7월에는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의 개교를 가져 왔고,<sup>32)</sup> 1910년 5월 2일에는 이를 모체로 하여 제주공립농림학교가 개교되었다. 1909년 정의공립보통학교, 1911년 대정공립보통학교, 1912년 제주공립심상학교 병설 고등소학교가 인가되었으며, 1917년에는 서귀공립심상소학교의 개교가 이루어졌다.<sup>33)</sup>

한편, 종교계에서는 1910년 10월 신성여학교가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1년으로 개설되었다.<sup>34)</sup> 개신교계에서는 문맹퇴치운동 차원에서 1910년 城內敎會에다 6년 과정의 영흥야간학교를 개설하기에 이른다. 조천지역에는 예수회에서 운영한 독서회관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인사로 김문준·김명식·김형식·金年培·한우병·金時範·이일빈·金淳鐸 등이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sup>35)</sup> 그리고 제주지역 곳곳에는 각 종교의 포교소가 신설되어 신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천지역에는 1915년 12월 24일에 朝天館敎會가 들어 섰다.<sup>36)</sup>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제주도의 인재들은 3·1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후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선도적 기능을 다하였던 것이다.

### Ⅲ. 濟州地域의 3·1運動

#### 1. 運動의 準備

제주지역에서의 3·1운동은 제주의 관문인 조천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3

32) 「私立濟州義信學校費基本金捐義文」(梁相文 所藏).

33) 高禎鍾, 「濟州島便覽」, 1930, pp. 9~13.

34) 당시 교지는 삼도1동 향청골 향사당 자리였으며, 초대 교장은 김시진이였다. 1916년에 일제 당국의 행정적 압력과 재정난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졸업생은 제1회 5명, 제2회 6명, 제3회 16명이 배출되었다(김찬흠, 「근대학교의 태동」, 『제주교육사』, 1979).

35) 김보현, 『조천지』, 제일인쇄사, 1976, pp. 68~70.

36)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월 25일.



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도 3·1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해당한다.

운동의 발단은 당시 휘문고보 4학년인 제주 조천 출신 金章煥이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귀향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미 金時範·金時殷 등이 전국 각지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는 시위운동이 발발하고 있음을 듣고, 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1873년(고종 10) 제주에 유배온 崔益鉉으로부터 척사론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유림세력이었다. 즉 崔益鉉의 문인이며, 한말 제주도에서 道學의 제일인자였던 金義正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김시우와 이들은 서로 형제지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김시학 역시 형제지간이었다. 이들은 김용빈·김용전 등과 조천지역에서 전통적인 양반세력으로 불리는 소위 '朝天金氏'의 핵심적인 인물들이다.<sup>37)</sup>

특히, 金時學은 金明植<sup>38)</sup>과 함께 일본 유학 중에 朝鮮留學生學友會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김시학은 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인 申翼熙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연이 연유가 되어 김시학은 1917년 신익회 등을 방문하여 1차대전이 끝나면, 일본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의하기에 이른다. 이에 宋鑣萬·朴泳孝 등과 밀의, 범사회계층을 구성하여 조선의 독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sup>39)</sup> 이러한 가운데 1차대전이 종식되자,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민족적인 운동인 3·1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1917년 김시학의 조선독립방안 제의는 그 후 3·1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제주출신 김시학은 3·1

37) 송광배, 앞의 논문, pp. 16, 17.

38) 한말 정의군수 김문주의 아들로 일본 조도전대학 정경과를 졸업한 후,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발기인, 동아일보 기자, 1921년 서울청년회 조직, 조선청년연합회 기성회 발기인, 1922년 동아일보를 사임하고 『신생활』 창간을 발행했다가 1922년 11월 23일 김명식의 「러시아 혁명기념과 5년전 회고」 등이 문제가 되어 일제의 고문으로 신체장애자가 되었으며, 1922년 12월 26일 징역형을 언도받았다(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23년 1월 16일: 『동아일보』, 1922년 12월 27일; 1923년 6월 19일; 1923년 6월 23일; 1923년 6월 24일; 1925년 9월 5일자: 『조선일보』, 1930년 7월 5일자 참조).

39) 『한국독립운동사』 p. 95, 96.

운동의 선창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후 김시학의 구체적인 행동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1927년 11월 '朝鮮農人社'를 창립할 때, 呂運亨과 함께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sup>40)</sup>만이 확인된다.

어떻든 조천지역에서 항일운동이 고조되어 나가고 있던 상황에 직접적인 도화선을 제공한 이는 다름 아닌 김시학의 아들이며 金時範·金時殷의 조카인 金章煥이었다. 金章煥은 경성에서 3·1만세 시위에 가담하여 활동을 전개하다, 3월 5일 이후 시위자 색출작업이 강화되자 3월 12일 제주 귀향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3월 15일 목포에 도착하였고, 조천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날인 3월 16일이었다. 이 때 金章煥은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들어 왔는데, 인사차 숙부 金時範을 찾아간 그는 서울의 시위상황을 소상히 말하였다. 金時範·金時殷은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여러 船便이라든가 人便에 익히 듣고 있던 터라 제주지역에서의 시위운동을 결심하게 된다.

金時範은 金時殷·金章煥과 함께 3월 17일경 조천리 味毛峙(속칭 미릿동산)에서 거사 발의를 하고 동지 규합에 나섰다. 이들의 동지 규합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9일까지 규합된 인원은 14명의 거사 동지였다. 즉, 金時範·金時殷·高載崙·金滢培·金年培·黃鑣式·金容燦·白膺善·金章煥·朴斗圭·李文千·金熙洙·金慶熙·金弼遠 등이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21일로 정하였다. 대부분 지방에서의 3·1운동은 장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시위 군중이 장꾼으로 가장함으로써 시위 움직임은 은폐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서 모여든 장꾼들을 참여 시킴으로써 쉽사리 큰 시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그러나 조천에서의 거사일은 장날이 아니었다. 이 날은 조천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의 유림간에 명망이 높은 김시우의 기일이었다. 이는 시위주동자들의 대부분이 金時宇의 直傍系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기일을 택함으로써 그들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사 준비는 金瑩培가 대형 태극기 4본의 제작을 담당하였으며, 金時範·金瑩培·白膺善 등은 소형 태극기 300여 장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인 동지의 규합 결과 14인 외에 金濡培·金淳鐸<sup>41)</sup>·文奉祺·金沄培·윤주

40) 「동아일보」, 1927년 11월 27일, 「朝鮮農人社創立」.

41) 김순탁은 3·1운동 이후에도 1928년 8월부터 회원 약 100명을 규합하여 조선청

진·고원륜 등이 가담하였다.<sup>42)</sup>

## 2. 運動의 展開

新左面(현 조천읍)의 3·1운동은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차례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지역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함덕리와 신흥리, 신촌리로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 1) 1차 시위

3월 21일 아침 조천 미밋동산에는 14인 동지를 비롯하여 조천리 주민과 인근 함덕·신흥·신촌 등지의 書堂生徒 등 150명이 모였다. 14인 동지 중의 한 명인 金弼遠은 더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호지에 철서로 '대한 독립만세'라 써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제주경찰서 조천주재소 서쪽에서 시위군중이 운집해 있는 동쪽 미밋동산으로 행진하였다. 그러자 약 500여 명의 주민이 그의 뒤를 따라 미밋동산에 이르렀다. 오후 3시경 시위대는 미밋동산에 태극기를 높이 꽂아 놓고 金時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金章煥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행진은 조천 비석거리까지 이루어졌다. 시위 주도자들은 타지역으로의 시위확산을 위하여 金時範·金時殷·金章煥·黃鎮式 등 4명의 주도하에 제주성내로 향하여 시위행진을 강행하였고, 결국 신촌리에 이르러 경찰과 대치하였다.

당시 제주경찰서 조천주재소에는 神田 순사부장, 순사 2명, 보조원 2명 등 5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조천주재소의 경찰력으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할 수 없자, 급히 제주경찰서에 경찰의 증원을 요구하였고, 얼마없어 30여 명의 순사가 도착하였다. 1차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3명이 연행되었으며,<sup>43)</sup> 이 중에는 14인 동지 가운데 金時範·金時

---

년동맹의 조천지부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야학운동을 통해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공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언도받았다. (『조선일보』, 1930년 3월 28일, 4월 18일, 6월 16일 자;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30년 6월 12일).

42) 송광배, 앞의 논문, p. 32.

43) 조선총독부경무국, 「三·一運動一次報告」, 1919년 3월 24일, 高第 8310(『三·一運動編1』, 국학자료원, 1991, p. 325).

殷·金容燦·高載崙·金瑩培·黃鑣式·金章煥·金慶熙·金熙洙 등 9명이 포함되었다.

## 2) 2차 시위

3월 22일에는 조천장터에서 白膺善·朴斗奎·金弼遠 등의 주도하에 200여 명<sup>44)</sup>이 전일 검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2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신촌리를 향하여 행진해 나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2차 시위를 주도해 나갔던 朴斗奎와 金弼遠이 치안방해를 이유로 연행되면서 시위대는 해산하게 된다.<sup>45)</sup>

## 3) 3차 시위

3월 23일의 시위는 검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조천 오일장터에서 白膺善·金年培·李文千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이문천은 약 100여 명의 시위대를 지휘하여 합덕리로 시위행진을 강행하였다. 합덕리에 이르자, 이곳 청년과 주민들의 합세로 시위대는 800여 명으로 증가하여 시위운동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3차 시위로 이문천·白膺善 등 8명이 연행되었는데,<sup>46)</sup> 이 중에는 "대한독립만세, 같이 죽자 만만세"라는 구호를 열창했던 여자도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신흥리에 거주하는 李貴童이라 전하기도 한다.<sup>47)</sup>

## 4) 4차 시위

3월 24일의 4차 시위는 마침 조천의 오일장날(음력 2월 23일)이었다. 장날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운동을 전개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金年培를 중심으로 조천장터에서 약 1,500명의 시위군중이 검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시위운동에는 조천오일장을 보러 나왔던 부녀자들의 상당수가 시위군중에 합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 시위로 金年培 등 4명이 체포됨으로써 시위운동은 점차 소강상태로 접

44) 朝鮮軍司令官, 「三·一運動一次報告」, 密第102號 其109(「三·一運動編1」, 국학자료원, 1992, p.144).

45) 이 당시의 군중은 약 200명 정도였으며, 4명이 체포되었다.(「三·一運動一次報告」, 1919년 3월 23일, 고제 8310호).

46) 「三·一運動一次報告」, 1919년 3월 26일, 고제 8874호.

47) 송광배, 앞의 논문, p.37.

어 들었다. 즉,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인 14인이 모두 검거되어 버리자 만세시위운동은 일단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영향으로 서귀포 일부 어촌에서 해상만세시위, 서귀포 삼매봉에서의 만세시위가 잇달아 일어나는<sup>48)</sup>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조천의 만세운동은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가져왔다.

### 3. 運動의 結果

이 운동으로 1심에 기소된 자는 모두 29명이며, 이 중 23명이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형을 선고받았다.<sup>49)</sup> 그 가운데 핵심세력인 14인 중지는 이에 불복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여 1919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에서 조선총독부 판사 竹尾義磨, 長野一郎, 田林來에 의해 형이 선고되었다.<sup>50)</sup>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신좌면 조천지역 3·1운동의 핵심인물 14인은 옥고 생활을 마친 이후, 항일 운동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1921년 同味會를 조직하였다. 동미회의 조직원들은 감옥에서 새끼를 꼬아 얻은 약간의 금액을 공동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김희수로 하여금 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sup>51)</sup> 그리고 일경의 혹독한 옥고로 인하여 1920년 3월경에 사망한 백웅선의 묘소에 기념비를 비밀리에 세우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재륜은 1923년 서울중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김시범과 김년배는 조천 독립회관 교사로 활약하기에 이르렀다. 박두규는 조천사립학교 교사로, 김시은과 김형배는 1923년 11월 조천노동단을 조직하였으며, 박장환은 동아일보 기자로 각기 활약하였다.<sup>52)</sup>

48) 서귀포에서의 시위는 4월 1일 밤 8시경에 어선 수 십척이 등불과 태극기를 船頭 뜻대에 높이 달고 북을 울리면서 만세를 부르는 한편, 산(삼매봉)에서 불을 피워놓고 만세를 부르다가 주모자 10여 명이 체포되었다(이병헌 편저, 『三·一運動秘史』, 1959, p. 920).

49)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명부」.

50)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5월 29일.

51) 고재륜, 「萬歲回顧」(필사본), 고택구(서귀포시 거주) 소장.

52) 송광배, 앞의 논문, p. 53.

< 1919년 제주 신좌(조천) 만세운동 관련자 처벌상황 >

對象者	住 所	年	職業	刑 期		범죄사실
				1審	2審	
金時範	전남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	30	잡화상	1년	1년	거사모의, 3월 21일 시위주동
金時股	"	30	"	1년	1년	"
金容燦	"	31	"	6월	6월	3월 21일 시위주동
高載崙	"	21	농업	6월	6월	"
金堊培	"	19	"	6월	6월	태극기 4매 제작, 시위주동
黃鎮式	"	20	"	1년	8월	3월 21일 시위주동
金章煥	"	18	학생	1년	8월	거사 모의, 시위주동
金慶熙	"	26	농업	6월	6월	3월 21일 시위주동
金弼遠	"	20	"	8월	8월	"
金熙洙	"	21	"	8월	8월	"
李文千	"	28	잡화상	8월	8월	3월 21, 22일 시위주동
白膺善	"	24	과자상	6월	6월	3월 22, 23일 시위주동
朴斗奎	"	23	교사	8월	8월	3월 21일 시위주동
金年培	"	24	농업	1년	8월	3월 23, 24일 시위주동
金時熙	"	37	"	6월 집유3년		
金百能	" 2438	22	"	6월 집유3년		
夫秉格	" 337	22	"	6월 집유3년		
金宗鎭	" 2778	18	무직	6월 집유3년		
韓哲瑛	전남 제주 신좌면 함덕리 997	23	농업	6월 집유3년		
韓錫化	전남 제주 신좌면 조천리	23	"	6월 집유3년		
金東仁	"	21	용인	6월 집유3년		
金淳鐸	" 3841	25	농업	6월 집유3년		
韓伯興	전남 제주 신좌면 함덕리 1338	21	"	4월 집유3년		

#### 4. 運動의 特徵

1) 지역적 특징 : 지역적으로 조천은 육지와 통하는 관문으로 중앙의 소식을 접하거나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金旌義', '慎大靜'이라 일컬어지는 전통적인 토착양반세력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 2) 전개상의 특징

(1) 거사일 : 운동의 최초 거사일은 장날이 아닌,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던 김시우의 소기일이었다. 이는 이 운동이 유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 장소 : 독립선언의 최초 장소는 속칭 미릿동산이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 신앙인 神堂이 있어서, 이 일대의 지역민들은 이곳을 聖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점이 선언서 낭독 장소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운동이 전개되면서는 사람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장소인 조천 장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3) 운동의 전파 : 이 운동은 신촌·함덕·신흥 등의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산남 지역인 서귀포 등지로도 확산되어 나갔다.

(4) 시위양상 : 1차 시위는 완전히 평화적 시위였다. 그러나 1차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점차 부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하면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다소 투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폭력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 (5) 추진주체

운동의 주체세력은 청년층이었다. 형을 선고받은 28명 중에 연장자가 37세 1명, 연소자가 18세 2명, 19세 1명에 불과했으나, 20~3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19명으로 제주지역의 3·1운동이 청년중심의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진세력의 직업별 분포는 농업 14명, 상업 5명 (잡화상 4, 과자상 1명), 교사 1명, 학생 1명, 용인 1명, 무직 1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주지역 3·1운동이 계급적 한계를 극복한 민중운동이었음을 말해 준다.

추진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주로 유림의 영향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제주에 유배되었던 崔益鉉의 칙사론에 영향을 받은 김희정 - 김시우로 이어지는 이

지역 유림의 계통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운동 주체의 상당수가 김시우의 친척이었다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은 유림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근대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통적인 보수 유림의 성향을 점차 극복해 나간 부류이기도 하다. 이는 金允植·朴泳孝 등 개화사상의 영향이었다. 반면에 김연배(조천 예수교 전도사)와 같이 새로운 종교, 즉 기독교의 영향으로 새롭게 성장하던 지식인층들도 다소 포함하고 있었다.

## IV. 島外에서의 3·1運動

### 1. 서울에서의 운동

서울에서의 3·1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蔡順乘·崔貞淑·朴圭燦·金成淑 등이다.

#### 1) 蔡順乘

채순병은 제주도 제주면 1도리 1158번지에서 출생<sup>53)</sup>하여 유년시절을 제주에서 보내고, 당시 서울에 유학 중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 그는 16세의 나이로 사립국어보급학교 고등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경성부 안국동 69번지 박태병씨 댁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채순병 역시 3월 1일 오후 3시경 태화관에서 조선독립을 알리는 선언서가 발표되었다는 독립신문을 보고 같은 방 하숙생인 김종현·최강운 등과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적극적으로 3·1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던 李乘周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3월 5일 남대문 앞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警告]란 제목하의 유인물을 半紙 200매를 잘라 채순병 소유의 등사판으로 400매를 작성하고 이를 수송동, 송현동, 중악동, 소격동 방면에 배포하였다. 유인물의 내용은 3월 5일 오전 5시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동포는 준비해 둔 태극기를 가지고 오전 8시 30분까지 남대문 앞에 집결하자는 것이었다.<sup>54)</sup>

53) 본적지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171번지이다(국편, 『한민족독립운동사 14』, 「채순병 신문조서」 1919년 3월 11일, p.225).

54) 「채순병 신문조서」(1919년 3월 11일),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년 11월 6일),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년 2월 27일).



한편, 채순병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남대문 부근에 가서 내일 남대문 앞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설득하였다. 3월 5일 많은 군중들이 집결하자 채순병은 오전 9시경 태극기와 赤布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그후 채순병은 군중들의 시위 행진을 주도하다가 당시 매일신보사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3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横田義太郎 검사에게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조사 중에 압수당한 수첩에 기재된 영문의 암호문과 3월 5일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였다.<sup>55)</sup>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sup>56)</sup> 채순병은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sup>57)</sup> 채순병은 만기 출옥 후에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였다.<sup>58)</sup>

## 2) 崔貞淑

최정숙은 제주군 제주면 삼도리 948번지 출생으로 당시 18세의 나이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었다.<sup>59)</sup> 그의 종교는 천주교였으며 1919년 3월 5일의 訊問調書에 따르면 프랑스인 朴神父에게서 포교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그는 3·1 독립 선언이 있는 후 연일 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체포되던 3월 5일에는 학생들의 시위대를 보고 기숙사내 다수의 학생과 함께 시위에 가담하였다. 그가 체포된 3월 5일의 시위운동은 종로 → 대현문 → 종로(再次) → 창덕궁 → 광화문 → 서대문 → 경성 우편국 → 本町洞으로 이어지다가 체포 당하였다.<sup>61)</sup> 그는 체포 당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玉名友彦

55) 「채순병 신문조서」, 1919년 3월 11일.

56)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년 11월 6일).

57)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년 2월 27일).

58)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 재일본한국인민족운동사자료집, 「경시청 편입 요시찰인물」, 1978, p.23.

59)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4 : 三·一運動4, 「최정숙 신문조서」(1919년 3월 5일), 1991.

60) 「최정숙 신문조서」, 1919년 3월 5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6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 「최정숙 신문조서」(1919년 3월 5일), 1991년, p.52 : 국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 「최정숙 신문조서」(1919년 4월 18일), 1991, p.150.

검사에게 신문을 받고, 1919년 11월 6일 치안 방해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sup>62)</sup>

3) 朴圭壘<sup>63)</sup>

박규훈은 제주면 이도리 7-3번지 출신으로 1919년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의 종교는 예수교였다. 3월 1일에 종로 등지에서 운동에 참여한 박규훈은 3월 2일 오전 6시반 경성고등보통학교 정문 앞에서 운동에 참여하지는 내용의 전단 60여 매를 살포하였다.<sup>64)</sup> 또한, 제주 출신 경성고보 1년생인 洪淳起(당시 팔판동에서 김성숙과 동숙하고 있었음)<sup>65)</sup>와도 교류하기도 하였다. 그는 3월 8일 하숙집에서 체포당하여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등으로 訊問을 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보통학교 동창생인 제주도 성내 대로동에 거주하는 홍순표(후에 순사가 됨)에게 보냈던 2월 23일 '2천만의 대표자가 되어 운운, 4천만이 한꺼번에 모여 오더라도 이미 대항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운운 이 글을 보거든 찢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從兄에게 보내려고 생각해 3월 7일 밤에 쓴, 즉 '나는 조선의 자유를 얻기위해 연일 시위운동을 하고 있고, 학교도 동맹휴교하였다. 등등'이라는 편지가 밝혀졌다.<sup>66)</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중앙의 소식이 편지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제주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는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sup>67)</sup>

62)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년 11월 6일.

63) 1919년 3월 17일자로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보낸 소요사건 관계자 평소 성행조사에 의하면 박규훈은 성질이 온순하고 과언이며, 성적은 중정도였다(국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 1991, p. 4).

64) 국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박규훈 신문조서」(1919년 5월 22일), 1991, pp. 563~566.

65) 홍순기는 그 후 이름을 陽明으로 개명하고 일본 조도전대학에 유학하면서 1927년 신간회 동경지부 창립에 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28년 조선공산당 조직에 관여하였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신의주지방법원, 「예심결정서」, 1929년 4월 15일 : 『조선일보』 1929년 7월 19일, 12월 7일자 참조).

66) 위와 같음.

67)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년 11월 6일.

4) 金成淑

김성숙의 본적은 제주도 대정면 가파리 96번지인데, 3·1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경성고보 4년생(24세)<sup>68)</sup>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운동을 전개하다 3월 2일 홍순기의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김성숙은 1919년 2월부터 3월 5일까지 조선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배포함은 물론 3월 1일 이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3월 5일에 남대문·종로·대한문 등지에서 운동을 전개하다가 11시경에 체포되었다.<sup>69)</sup>

김성숙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19년 8월 30일 예심 종결에서 면소되어 방면되었다.<sup>70)</sup> 그러나 '소요사건 관계자 평소 성행조서'에 의하면 그는 '평소부터 반항적 기질이 있어 과격한 언동및 태도를 보여, 교관에게 혼계를 받은 바가 있으며, 3월 1일과 2일에는 기숙사의 학생들을 선동하여 퇴사한 사실이 역력하다'<sup>71)</sup>고 하여 운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는 고향 가파도에다 辛酉義塾<sup>72)</sup>을 건립하여 민족교육에 노력을 하다가 27세로 早稻田大學에 입학하였고, 유학시절 한국유학생 회장으로 활약하기도 한다.<sup>73)</sup>

68) 경성지방법원, 「豫審終結決定」, 1919년 8월 30일.

69) 그러나 김성숙은 신문과정에서 남대문역에 나간 것은 형 金成春이 상경하여 마중나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가 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은 분명하다(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14」, 「김성숙 신문조서」, 1919년 3월 10일, pp.101~103, 1991).

70) 경성지방법원, 「豫審終結決定」, 1919년 8월 30일.

71) 국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 1991, p.3.

72) 신유의숙은 1921년 김성숙의 전의와 이용신, 이시화, 김옥천, 김한정, 이도일 등의 功勞로 1922년 4월 22일 개교하였으며, 1946년 가파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흡수되었다. 참고로 당시 김성숙이 지은 가파도 辛酉義塾歌는 다음과 같다.

1. 활발하고 건강한 우리 학도는/일조의 서광이 비치었으니/소리를 마주치고 용맹스럽게/아－ 찬송합시다.

2. 위롭다 한라산을 쳐다보श्य요/맹렬한 동풍한설 몇 번 지나도/만고불변 엄연하기 군장의 절개/아－ 고상하다.

후렴: 신선하다 우리 학교여/화려하다 우리 학교여/무궁화 새 가지의 꽃이 아닌가/아－ 잘 배양합시다.

## 2. 全北 群山에서의 運動

전북 군산(옥구)<sup>74)</sup>에서의 3·1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제주 중문리 출신의 康文昊·姜圭彦이다. 이 양인은 1914년 중문리에서 기독교에 입교한 후에 옥구 소재의 구암리 예수교회 부설 永明學校에 유학 중이었다.

옥구에서의 시위운동은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에 자리한 영명학교 교사 朴淵世·李斗悅 등이 서울에서 내려온 세브란스의전 학생인 金炳洙로부터 독립선언서 200장을 전수받은 2월 28일부터 계획되었다.<sup>75)</sup> 그래서 3월 4일 군산장날을 기하여 1차 거사를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학생 김영후·송기옥, 제주 출신의 강문호·강규언 등과 함께 학교기숙사 2층 다락방에서 선언서 7천여 장을 비밀히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각 지방에 연락, 당일의 거사를 준비하여 나갔다.

3월 4일 강규언·강문호 등은 양기철·전세종·김영후 등과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군산시내로 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명학교에 보관 중인 독립선언서 2천장이 압수되었고 교사 이두열 등 90여 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이 때에 강규언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3월 4일의 만세시위운동 이후 더욱 삼엄해진 경찰의 경계와 감시속에서도 보통학교 상급생들이 비밀회의를 갖고 영명학교의 뒤를 이어 2차 시위를 기도했다. 3월 14일에는 70여 명의 학생이 집단 자퇴원을 제출하였으나, 일본인 교장에 의하여 반려되었으며, 이에 불만을 지닌 학생들이 급기야는 3월 23일 밤 11시 학교를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sup>76)</sup>

3월 30일 강문호 등은 군산시에서 또다시 만세시위사건을 주도하였다. 즉, 3월 30일 밤 9시경 수백 명의 시위군중이 횃불을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73) 김성숙의 碑文(가파국민학교 앞) 및 李仁植의 증언.

74) 옥구와 군산은 동일생활권 지역으로 1909년 군산부와 옥구군으로 분리하였으나, 옥구군의 군청이 군산부내로 이전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 살필 수가 없다.

75) 「김병수 신문조서」(1919년 4월 21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국편, 1991), pp. 48~50.

76) 대구복심법원, 「판결문」(강문호), 1919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강규언), 1919년 4월 30일.

경찰서와 법원 앞으로 밀어닥치자, 삼시간에 시위군중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이른날 재판장에는 30여 명의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포승에 묶인채 들어서자, 강문호는 오전 10시 40분에 방청하러 온 시민들을 모아 모자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다가 체포되었다.<sup>77)</sup> 그후 그는 재판을 받아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가서까지 끝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강문호(당 21세)는 1919년 4월 2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해졌다. 강문호는 이에 불복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1919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1부에서 오히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에 이른다. 강문호는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19년 5월 22일 상고가 기각되고 말았다.

강규연(학생, 당 21세)은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1부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sup>78)</sup>

### 3. 全南 光州에서의 運動

광주지역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제주출신은 朴宰夏·高蓮紅이다. 박재하(39세)는 제주면 중대리 출신으로 광주 북문통에서 신발상을 경영하고 있었고, 고연홍(17세)은 제주면 상무리 출신으로 수피아여학교 학생이었다.<sup>79)</sup>

광주의 3·1운동은 경성 봉래동 신행여관에 체재 중인 나주군 나주면 금정리 金福鉉이 광주로 귀향하면서 비롯되었다. 김복현은 경성체재 중 某청년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수천매, '경고 우리 2천만 동포'라는 격문 약 100매, 崔八鏞 등 10명이 연명한 선언서 약 150매, 독립가의 인쇄물 약 100매, 국민대소집 청원서 약 10매를 전남에 배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래서 김복현은 앞서 언급한 문서를 가지고 3월 6일 광주에 들어와 이 사실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金剛과 의논하여 3월 10일 광주장터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 김강은 수피아여학교 교사 朴愛順과 교섭하여 학교 생도들의 참여를 권유하게 되었다.<sup>80)</sup>

77) 위와 같음.

78) 대구복심법원, 「판결문」(강규연), 1919년 4월 30일.

79)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년 4월 30일.

80) 위와 같음.

그리하여 3월 10일 광주장터에서 우체국앞까지 시위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제주출신으로 고연홍과 박재하가 참가하게 된 것이다. 고연홍의 경우는 당시 수피아여학교 학생인 점으로 미루어 교사 박애순의 권유로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재하는 이와 달리 당시 직업이 신발상인 점을 볼 때, 광주면 북문통에서 신발상을 경영하다가 시위운동을 보고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재하·고연홍은 1919년 4월 30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sup>81)</sup>

## V. 其他의 運動

### 1. 獨立犧牲會 軍資金 募金運動

독립희생회 군자금 모금운동<sup>82)</sup>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은 崔 檀·趙 鳳鎭·文昌來 등 3인이다. 당시 최정식(22세)은 제주면 3도리 출신으로 대서업자 밑에서 용인으로 있었으며, 조봉호(34세)는 제주면 이도리 출신으로 직업은 농업이고, 문창래(35세)는 신우면 애월리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sup>83)</sup>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군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5천 만원을 국내에 요청하였다. 이 때 국내에서는 安熙濟가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조선독립희생회 연락원 金昌圭가 「임시정부 선전문」, 「해외통신과 제반 사항」(독립청원서 관련), 「통신사항」(독립군 자금 모금관련) 등 3종의 문서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왔다.<sup>84)</sup>

김창규는 최정식·조봉호와 접촉하여 독립희생회를 제주지역에 조직해 줄 것과 회원 1인당 2원씩을 군자금으로 모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들은 최정식의 집에서 등사판을 이용 3종의 문서를 각 50매씩 인쇄한 다음 제주

81) 위와 같음.

82) 군자금 모금운동에 참여했던 제주출신으로 고수선이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는 대정면 출신으로 서울에 유학하고 있던 1919년 370원을 모금하여 박정식편에 송금한 바 있다.

83)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11월 12일.

84) 위와 같음.

도 각 면사무소에 배부하였다. 이 때 최정식은 신좌면·구좌면·정의면·동중면, 조봉호는 제주면 성내와 신우면 일대에 배포하였다. 또 조봉호는 일도리에 거주하는 장로과 목사 金昶國, 대정교회 尹植明 목사, 정의교회 林貞燦 목사 등에게 이에 동조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4,450명으로부터 1만 원울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의해 7월에 조봉호 등 60여 명이 체포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sup>85)</sup>

1919년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최정식(22세) 징역 3년, 조봉호(37세) 징역 2년, 문창래(35세) 징역 6월형이 선고되었다.<sup>86)</sup> 이에 불복 공소를 제기한 결과, 1919년 11월 12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에서 최정식 징역 1년 6월, 조봉호 징역 1년, 문창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봉호는 복역중 대구형무소에서 1920년 4월 28일 옥사하였다.<sup>87)</sup>

## 2. 1919年 檄文事件

1919년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제주지역에서도 신좌면 조천리를 중심으로 3·1운동이 전개된 이후, 舊右面을 중심으로 全島의 서당 생도들을 모아 시위운동을 전개하려는 격문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구우면 저지리의 서당 훈장 朴世賢, 낙천리 金汝錫, 趙武彬, 신좌면 조천리의 愼啓善의 주도하에 거사전에 고사를 지내고 격문을 붙이다 검거되게 된다. 그 결과 1919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박세현(39세)은 징역 3년, 김여석(27세) 징역 3년, 조무빈(33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신계선(45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sup>88)</sup>

## VI. 맺음말 — 운동의 영향 —

제주지역 3·1운동의 영향은 실로 대단하였다. 「濟州島の治安狀況」에 의하면 '조천·함덕·신촌 세 지역의 백성들에 의해 일어난 독립시위운동은 그

85) 위와 같음.

86)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명부」.

87) 대구교도소장 발행, 「조봉호의 옥사사실 증명서」, 1962년 2월 19일.

8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명부」.

후 청소년의 뇌리에 불온한 사상을 심어주는 출발점이었다.<sup>89)</sup>라 하고 있다. 안堯儉(別名 世勳)은 1942년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신좌소비조합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1919년 제주도 조선독립만세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자극을 받고 점차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sup>90)</sup>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비단 안요점 개인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한 제주 출신들의 대부분은 제주 지역 3·1운동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법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인물들 역시 그러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지역 3·1운동이 1920, 1930년대 제주출신들에 의해 전개되는 다양한 민족해방운동의 모태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지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 중 출옥 후, 민족주의 노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김순탁 등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김시범 역시 결국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럼 제주인들의 3·1운동은 그 후 제주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서는 3·1운동 이후, 제주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흐름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성과를 기대함은 물론,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인의 3·1동은 제주지역에 민족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김성숙의 주도로 1921년에 설립된 가파도의 신유의숙(6년제)은 대표적인 민족교육운동 기관이었다. 이 학교에는 김성숙·김한정·송종현·강문범·장종식·김호천 등이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32년 제주도 공산당 재건운동에 연루되어 검거됨으로써 신의의숙은 1년여간 폐교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3·1운동 이후 제주청년들은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야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연경야학회(김녕: 1922년), 노동야학회(합덕: 1925), 상도야학회(상도: 1925), 북촌부녀야학(1928)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제주인의 3·1운동은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그 이후 학생들에 의한 항일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 3·1운동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전개된 제주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1926년 6월 제주능

89)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思想月報』(필사본) 제2권 제5호, 1932.

90)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 1942년 8월 13일.



업학교의 일인교사 반대 동맹휴학, 1927년 5월 대정공립보통학교의 일인교사 반대 동맹휴학, 1928년 제주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 1929년 11월 광주학생 운동으로 인한 제주출신 10여 명의 학생이 형을 받은 사건, 1930년 1월 조천 리소년단원 피검 사건, 5월 대정면 어린이날 사건, 5월 구우공립보통학교 동맹휴교 사건, 1931년 1월 조천공립보통학교 학생 사건, 2월 화북리 청년동맹원 선동 사건, 3월 제주농업학교 교장 폭행 사건, 5월 구우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사건, 여수수산학교 제주출신 김봉철의 좌익독서회 사건, 서울 보성고보생 김만유의 일본 규탄의 격문 살포 사건, 1932년 3월 제주농업학교 독서회 사건, 11월 예산농업학교 강봉주가 친일사상고취에 반대한 사건, 1941년 12월 제주농업학교 항일만세 낙서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 운동은 지역적 단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주출신 유학생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전국적인 학생운동에 호응하는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제주인의 3·1운동은 제주지역에서 각종 사회단체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소년단체로 대표적인 단체는 제주소년단, 셋별소년단, 소년성학회, 소년신명회, 소년탐흥회, 소년용진회, 제주소년연맹, 그외 각 리의 소년회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청년단체로는 1921년 제주청년수양회(민중계몽), 제주청년홍학회가 조직되었으나, 청년단체에 대한 일본의 끈질긴 회유로 청년단체는 본래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나갔다. 그래서 1923년 9월 23일 제주청년연합회가 창립(가파청년회, 모습포청년회, 은평청년회, 서귀포청년회, 함덕청년회, 신촌청년회, 화북청년회, 제주청년회)되었고, 1928년 4월에는 제주청년동맹이 결성되기에 이른다. 그럼으로써 청년단체 운동이 1920~30년대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인의 3·1운동은 또한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편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20년대에는 1925년 3월의 신인회, 1927년의 조선공산당 제주 야체이카의 결성, 1927년 3·1운동 주도자들(김시범·김순탁·김운배 등)의 참여로 결성된 신좌소비조합운동, 1927년 文庫의 조직과 1929년 표면조직인 宇利契의 결성 등으로 나타난 아나키즘 운동 등이 있다. 1930년대에는 제주지역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유일한 민족해방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1930년 혁우동맹의 조직, 1931년 재건 조선공산당 제주야체이카 조직, 1930년대 초의 적색농민조합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